

칼럼

한국전문대학도서관의 역할과 과제



김종찬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회장
동남보건대학학술정보관 과장
jckim@dongnam.ac.kr

전문대학은 지난 40여년간 350여만명의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실무기술 인력을 배출하는데 기여해 왔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주문식교육, 산업체 현장실습, 위탁교육 전 공심화과정의 운영 등 꾸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이 65%인데 비해 전문대학은 83.7%(05년)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과 더불어 중요한 고등인력 양성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2006학년도 미충원률이 11.3%에 이르고 있으며, 충원률이 50% 미만인 학교도 11개교에 이르는 형편이다. 이러한 사회적 방향은 전문대학의 통계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즉 2006년도 152개의 전문대학은 2008년 현재 148개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생력을 고양하기 위해 전문대학은 첫째, 실무 응용분야 전문기술 직업인의 양성, 둘째,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실시, 셋째, 중소기업과의 산학협력 및 기술 개발·지도, 넷째, 직업교육의 국제화 등의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문대학의 역할 수행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전문대학의 사명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문대학 도서관은 기존 도서관의 개념과 기능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도서관의 개념을 창출해야 한다. 즉 기존 대학도서관의 주된 기능인 보관의 기능에서 초월하여 정보에 대한 능동적 접근의 개념을 도입해야 하며, 찾아가는 도서관의 구현을 통해 정보를 찾아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방문하는 개념이 아닌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대학의 구성원인 사용자들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한정된 대학내의 사용자들을 벗어나 지역 주민에게도 정보 및 학습제공을 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현재 정보유통의 새로운 매개체로 대두되는 온라인 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제공받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경쟁사회에서 전문대학의 존립까지 위협을 받는 현재 대다수 전문대학도서관의 경우 대학의 심장부로서 학문과 연구를 지원하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이다. 4년제 도서관의 1/4도 안되는 예산과 경우에 따라서는 1명도 되지 않는 사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1명의 사서조차 본연의 도서관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행정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전문대학도서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는 발전과 기능의 증대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특히 기존에 법령으로 지정한 도서관설치기준령의 세세한 사항들이 사라지면서 일부 전문대학에서는 발전을 위한 도서관의 운영이 아니라 구색 맞추는 개념의 도서관 운영으로 퇴색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현실에 맞는 전문대학도서관을 위한 법적 기준을 재정립하고 전문대학 사서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보존하는 일을 선행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전문대학 기구표상의 도서관의 위치를 격상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진흥법은 그 존재 가치가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하루속히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어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장 사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발전하는 정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즉 정보환경의 변화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요구의 다변화를 가져오고, 또한 정보 유통의 사이클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정보의 생성과 소멸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지고 다양해 질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서의 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와 다양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구현을 위해 전문대학도서관이 제공해야 할 구체적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 이용자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전문대학 학생의 경우 4년제 대학의 학생에 비해 도서관을 방문하는 시간적 여유가 모자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도서관에 방문 하지 않더라도 필요로 하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정보이용 교육, 도서관 이용 교육,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DB, 콘텐츠 등) 교육 등 적극적 이용자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연구 및 현장 정보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교수나 연구자의 학문을 지원하는 것은 대학 도서관이 제공해야 하는 최선의 역할이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이러한 학문의 지원 뿐 아니라 학생들의 직업교육과 기술 습득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지원해야 한다. 정형화된 정보는 물론이고 인터넷상에서 취급되어지는 유행형의 정보에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취득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전문대학 도서관도 결국 모태인 전문대학의 산하 기관이므로 격변하는 교육환경에서 대학의 나이갈 바를 정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즉 대학의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이나 미래지향적 정책의 수립은 물론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와 산학연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일조하여야 한다. 특히 전문대학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진행에 직·간접적인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전문대학 사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래 도서관 사서로서의 자질의 함양과 마인드의 변화가 요구되어진다. 전문대학의 교육환경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인식과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 이용자인 교수와 학생은 물론 행정 직원들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대학의 핵심부서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도서관의 구성원인 사서의 자질 함양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대학도서관의 발전은 모태인 대학 발전을 기반으로 하여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 수행은 필요불가분의 관계이다.

전문대학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료구입비의 확대, 사서 인력 확충, 시설 지원강화, 적극적인 정보화 기반 지원 등 기본적인 도서관 환경의 정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제정과 전담 인력의 배정, 도서관 예산배정의 증가 등 다양한 방안의 보조적이고 강제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지속적인 사서의 교육지원을 통해 정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대학 도서관 환경을 구현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의 구현과 더불어 전문대학도서관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이용자 교육, 연구 및 현장 정보지원 서비스, 행정 지원 서비스 등 대학발전을 지원하는 변화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과거의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 경쟁력 있는 대학의 핵심부서로서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대학도서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